

# CHAIRPERSON NOTE

## 경제 이슈

- 4개월째 위축되고 있는 소비 심리
- 美 정책금리, 0.25%p 인상

## 경영 노트

- 블로그 경영
- ‘사내 독립채산제’를 통한 기업 혁신

## 정치 현안

- 제4차 6자회담 휴회 결정의 의미와 과제

## 사회 트렌드

- 프리틴(pre-teen) & 로우틴(low-teen)
- 재태커族

## 저널 브리프

- 허즈와이프(huswife) 300만 시대

## 洗心錄

- 삼복론(三福論)

#### □ 4개월째 위축되고 있는 소비 심리

- 6개월 후의 경기, 생활 형편, 소비 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반영한 소비자기대지수가 7월에 95.2로 6월의 95.4보다 낮아져, 지난 3월 이후 4개월째 하락함
  - 특히, 월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기대지수만이 유일하게 기준치인 100을 상회한 106.6을 나타내어(6월의 104.4보다 0.2p 상승) 소득 계층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소득 여건이나 자산 효과가 미흡하여 향후에도 소비자 기대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
  - 6월 실업률은 5월의 3.5%보다 0.1%p가 상승한 3.6%를 기록하고 있어 핵심 소비 여력인 가계 소득의 확충이 미흡할 것으로 추정됨
  - 특히 자산평가지수 중 ‘주택 및 상가’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(6월 97.7에서 7월 97.1) 하여, 부동산 부문에서도 자산 소득 증대에 의한 소비 여력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

#### □ 美 정책금리, 0.25%p 인상

- (현황)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 :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)는 8월 9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3.5%로 인상(+0.25%p)함
  - 美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최근 미국 경기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,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버블과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
  - 미국의 기준 금리가 3.5%로 인상됨으로써 콜금리를 9개월째 3.25%로 동결중인 한국의 정책 금리는 미국보다 0.25%p 낮아지게 됨
- (전망과 대책) 韓美간 금리차 확대에 따른 국내 금리의 상승과 유동성 축소 압력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
  - 한국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콜금리 인상이 더뎠던 반면, 미국은 견조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린스펀 퇴임(2006년 1월) 이전까지 3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경기 중립적 수준인 4.0~4.25%까지 인상시킬 것으로 보임
  - 해외금리 상승은 결국 국내금리의 상승 및 자본 이탈(유동성 축소)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, 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함

## □ 블로그\* 경영

- 신시장 개척 및 고객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'블로그 경영' 활용
  -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고객의 관심을 끌고, 고객의 비판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'블로그 세계(blogosphere)'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함
  -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로그 전담 마케팅 담당 임원을 두고 있으며, 야후·구글 같은 첨단기술 기업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블로그 사용을 장려함
- 새로운 온라인 저널리즘인 블로그는 기업 이미지 개선 및 마케팅에 유용
  - 블로그는 고객과의 친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신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광고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, 일반 광고매체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고객 관리는 물론 브랜드 관리와 제품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  - 효율적인 블로그 활용을 위해서는 블로그로 얻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 하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며, 잘못된 정보를 올릴 경우 법률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함

## □ '사내 독립채산제'를 통한 기업 혁신

- 기업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립채산제의 활용이 증가
  - 독립채산제(self-financing)란 기업 내 사업 단위별로 독립성과 자립성을 추구하는 경영관리제도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경영 활성화를 추구함
  - 애플은 MP3플레이어인 '아이포드'의 기획 당시 해당 사업 부문을 '독립채산형 벤처'로 규정, 도전정신을 북돋우고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회사 매출의 1/3을 달성할 정도의 대성공을 이룸
- 대기업의 독립채산제는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미래 기회 탐색을 용이하게 함
  - 한정된 자원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는 대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함
  - 독립채산제는 기존 사업의 유지보다는 혁신을 위한 미래 기회 탐색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업 문화 형성을 촉진함

\* 블로그(blog)는 인터넷을 의미하는 '웹(web)'과 자료, 또는 일지를 뜻하는 '로그(log)'의 합성어인 '웹로그(weblog)'의 줄임말로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개인 웹사이트를 말함. 기존의 개인 홈페이지보다 만들기 쉽고 관리하기 편한 장점이 있음

□ 제4차 6자회담 휴회 결정의 의미와 과제

- (성과) 13개월만에 열린 4차 6자회담은 상호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, 북한의 공동합의문 서명 반대로 개최 13일만에 휴회되는 아쉬움을 남김
  - 이번 회담은 ① 11차례의 북미 양자 접촉이란 새로운 회담 문화 형성을 비롯하여 ② 한반도 비핵화 의지의 공유 ③ 북한의 핵 폐기와 참가국들의 상응 조치 의사 표명 ④ 휴회제 도입으로 모멘텀 유지 등에서 진전을 보임으로써 북핵 문제가 조정가능(manageable) 대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성과를 거둠
  - 그러나 북미 상호 불신에 따른 핵 폐기 범위와 평화적 핵 이용 여부, 상응 조치의 내용과 순서 등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임으로써 근본적 성과 없이 끝남

< 4차 6자회담의 북미간 주요 쟁점 >

쟁점 부문	미국 입장	북한 입장
비핵화 개념	- 북핵 폐기	- 북핵 폐기, 남측의 핵우산 제거, 주한·주일 미군 위협 제거
핵폐기 범위	-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 - 평화적 핵 이용은 NPT 복귀 후 국제적 우려가 해소되면 고려	-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 - 경수로를 포함한 평화적 핵 이용을 주권 차원에서 보장 요구
상응 조치의 내용과 순서	- 핵 폐기 절차 진입 후 검증을 거쳐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의 단계적 보장 - 관계 정상화는 핵, 미사일, 인권 등 모든 우려 사항 해소 이후로	- 핵 폐기와 관계 정상화의 동시 이행과 구체적인 정상화 시점 명시 필요 - 핵 능력 제거에 따른 보상 조치 - 경수로 사업 계속

- (전망) 4차회담 2라운드의 재개 여부와 휴회 기간 동안의 입장 조율 여부가 관건이나, 이견 부문에 대한 북미간의 근본적 입장 차이 존재로 단기간 내에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임
  - 회담 결렬에 대한 상호 책임 회피를 위해 4차회담 2라운드는 재개될 것이나, 휴회 기간의 접촉에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재개가 지연될 수도 있음
- (과제) 존이구동(存異求同)\*과 단계적 해결 원칙 하에서, 대화의 모멘텀 유지와 본격적 성과 도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
  - 예정된 남북회담은 물론, 한미 및 한중과의 다양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6자회담의 유용성과 모멘텀을 유지해야 할 것임

\* 존이구동(存異求同) :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, 같은 것부터 먼저 해결함

### □ 프리틴(pre-teen) & 로우틴(low-teen)

- 최근 '프리틴'과 '로우틴'이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음
  - '프리틴'이란 틴에이지(teenager, 13~19세) 이전의 10~12세의 아이들이며, '로우틴'이란 틴에이지 중 저연령층인 13~15세의 청소년 세대를 말함
- 이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여 부모가 바라는 라이프스타일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감각과 패션을 고수하고 있음
  - 가구당 자녀수가 하나 또는 둘로 적어짐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지고 있음
  - 이들은 휴대폰, MP3 플레이어, 디지털카메라 등에 대한 중요 고객일 뿐만 아니라, 자동차 구입 시에도 프리틴과 로우틴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등 구매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또한 막강한 것으로 나타남
- 기업들은 이들을 겨냥한 패션이나 감성 마케팅을 지향하여 평생고객화하려는 전략을 경주하고 있음
  - 이들은 미래 시장의 잠재고객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고객으로 잡아 충성스런 평생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

### □ 재테크族

- 재테크를 전업으로 하는 재테크(財+techer)족이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음
  - 과거에도 30·40대 일부 주식파, 50·60대 부동산파가 있기는 했지만, 요즘 떠오른 재테크족은 전연령대에 걸쳤을 뿐 아니라 투자 규모, 스타일도 다양각색임
  - 이들은 주목구구식 직감 투자가 아니라 주도면밀한 분석 투자를 지향하고, 이를 위해 전업투자자간의 동호회까지 생겨남
- 이들 전업투자자들이 재테크 신풍속도의 주인공으로 데뷔한 것은 일단 위기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음
  - 거듭된 저성장에 마이너스 금리, 빠듯한 월급쟁이 봉급, 조기 퇴직에 대한 위협이 작용했고,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및 주식의 활황, 실업 위기 및 조직의 얽매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어필함
  - 전업투자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꽤 나아져,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임

## □ 허즈와이프(Huswife) 300만 시대\*

- 직장에 다니며 생활비를 버는 것은 물론 집안 살림까지 혼자 해내는 여성을 ‘허즈와이프’(Huswife : Husband + Wife)라고 함
  -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한 몸으로 모두 해내는 슈퍼우먼으로서, 남편과 아내가 각자 별어 살림에 보태는 맛별이와 달리 여성 혼자 가장 역할을 책임지고 해내는 이들임
  -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국내 ‘여성가구주’는 2005년 현재 전체 가구의 19.5%인 307만 5,650가구에 이르고 있음
  -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1990년 15.7%, 1995년 16.6%, 2000년 18.5%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음
- 이렇게 허즈와이프가 늘어난 것은 이혼율이 높아지고 남편의 조기 퇴직으로 주부들이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때문임
  - 그러나 가족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에 집안 살림, 자녀 양육, 시댁 부양까지 떠안고 살다보니 허즈와이프의 고민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
  - 미국의 세계적인 경영자 칼리 피오리나가 휴렛팩커드(HP)의 CEO가 되었을 때 그의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며 ‘외조’에 나섰는데, 우리 정서상 아직 이런 사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
- 그러나 허즈와이프의 증가와 함께 ‘가장’이 갖는 전통적인 개념이 서서히 바뀌고 있음
  - 외환 위기 이후 실직자들이 양산되면서 경제권 없는 남편의 권위가 사실상 무의미해짐
  - 또한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들이 여성의 경제 활동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게 됐고, 여성들에게 가장의 자리를 기꺼이 내줄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
- 허즈와이프들의 증가세는 지금보다 더 빨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  - 명예퇴직, 조기퇴직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남성들의 실업이 용인되는 분위기이며, 그러다보니 남성들을 대신해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여성들은 크게 늘 것임

\* 이 글은 『이코노미스트』(2005.8.16)에 실린 글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## □ 삼복론(三福論)

호텔의 말단 직원에서 출발해서 최고 경영자로 성공한 일본 최고 호텔리어인 구보야마 데쓰오(窪山哲雄)는 그의 저서 <서비스 철학>에서 고객 서비스야말로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며 불황을 타개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다. 여기에서 그는 교훈적인 얘기 하나를 소개한다.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고다 로한(幸田露伴)이 쓴 ‘노력론’에 나오는 석복(惜福), 분복(分福), 식복(植福)이라는 유명한 ‘삼복’ 이야기다.

- 석복은 ‘복을 아끼는’ 것이다.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모두 다 탕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을 위해 남겨 두라는 것이다.
- 분복은 자신의 복을 독점하지 말고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다.
- 식복이란 자신은 당장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후손을 위해 복이 짝들 수 있는 씨앗을 심어 두라는 것이다.

저자인 구보야마는 이러한 삼복의 개념을 서비스업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.

- 좁은 안목으로 눈앞의 매출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석복의 마음이다.
- 또 사랑이나 꿈을 많은 고객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분복이다.
- 장차 직원이 다른 회사로 떠난다 해도 성심껏 인재를 교육하고 드넓은 사회에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일은 식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.

저자는 ‘서비스는 사랑’이라고 주장한다. 고객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기업은 고객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. 상품보다 꿈을 파는 것이 서비스업의 참모습이며 이것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.

“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어떤 일을 할 때  
거의 맞게 하는 것과 정확히 맞게 하는 것의 차이이다.”

에드워드 사이먼스(1852~1931): 美 모럴리스트, 화가